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따라 삶

5/19 월요일

아침의 누림

단 4:34-35

34 “그날들이 왔을 때, 나 느부갓네살이 내 눈을 들어 하늘을 보자, 내 이성이 내게로 돌아왔다. 나는 가장 높으신 분을 찬양하고 영존하시는 분을 찬송하며 그분께 경의를 표하였다. 그분의 통치권은 영원한 통치권이요 그분의 왕국은 대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35 땅의 모든 주민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나 그분은 하늘의 군대에서나 땅의 주민들 가운데서나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니 그분의 손을 막거나 그분께 ‘무얼 하시는 겁니까?’ 할 이가 아무도 없다.

사 64:8 그러나 이제 여호와님, 주님은 저희 아버지이십니다. 저희는 진흙이요 주님은 저희 토기장이이시니 저희 모두가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작품입니다.

사 29:16 너희는 일들을 뒤집어엮는구나! 토기장이가 진흙처럼 여겨질 수 있느냐? 만들어진 것이 자기를 만든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할 수 있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는 총명이 없다.” 할 수 있느냐?

계 4:11 “우리의 주님, 우리의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만물이 존재하며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계 5:13 또 나는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과 어린양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엡 1:4-5

4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5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주권은 ... 하나님의 속성들 가운데 하나이다. 그분은 주권적인 분이시다. 주권은 하나님의 무한한 권위와 능력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지위도 역시 무한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위가 얼마나 높은지를 능히 말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도 측량할 수 없다.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시므로, 그분의 권위와 능력과 지위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결론, 하나님, 메시지 11, 158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9 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호소하면서 이렇게 물었다.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20 절) 다음 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이렇게 말한다. “토기장이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바울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주권적인 권위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그분께 말대꾸하는가? 우리는 자신이 진흙이며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계신다. 그분은 긍휼의 그릇(롬 9:23)만이 아니라 진노의 그릇(22 절)도 만드실 권리를 갖고 계신다.

로마서 9 장 16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 영광에 이르도록 귀하게 쓰일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달음질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달린 것이다. 우리가 긍휼의 그릇인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속한 것이다. 긍휼의 그릇이 되기로 결정한 것은 우리가 아니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이러한 결정을 내리셨다. 우리가 자신을 긍휼의 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에게는 자신 안에서 스스로 이렇게 말할 그 어떤 권리도 없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은 진흙덩이에 대한 권위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를 긍휼의 그릇들이 되도록 선택하셨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의 그릇됨을 시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만드셨음을 입증하는 증거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이다. 로마서 9 장 18 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기로 하셨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가 다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미쳤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의 긍휼은 그분의 주권 안에 있다(롬 9:20-2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그분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로 선택하셨다는 것이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생각해 보라. 그 누가 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에서는 선택하지 않기로 하셨는지 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주권 안에서 한 명은 선택하시고 다른 한 명은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주권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이들인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해야 할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의 긍휼을 주제로 하는 찬송들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찬송은 찾아 보기가 어렵다. ... 바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끌릴 필요가 있다. 그분과 따지는 대신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주권으로 인해 당신께 경배합니다. 비록 저는 자격이 없지만 당신의 주권 안에서 당신은 저를 긍휼히 여기기로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주권을 주제넘게 만지려고 하지 말라.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롬 9:20)라고 묻는 바울의 경고에 주의를 기울이라. 우리 자신이 단지 진흙임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말대꾸하지 않을 것이다. 반대로 우리는 단순히 그분의 주권에 대해 그분께 경배를 드릴 것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 261-26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1-22

5/20 화요일

아침의 누림

롬 9:19-21

19 그러면 그대는 나에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사람의 잘못을 나무라십니까? 누가 그분의 뜻을 거역하겠습니까?”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0 그러나 그대가 누구이기에 사람으로서 감히 하나님께 말대꾸합니까? 빚어진 것이 빚은 이에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느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1 토기장이와 같은 진흙덩이로 하나는 귀하게 쓸 그릇을, 하나는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 권위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출 33:19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의 모든 선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네 앞에서 여호와와 이름을 선포하겠다.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

딤후 2:20-21

20 그렇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귀하게 되고 어떤 것은 천하게 됩니다.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 그는 귀한 그릇이 되어 거룩해지고, 주인에게 쓸모 있게 되며, 온갖 선한 일을 위하여 예비될 것입니다.

엡 2:4

4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다.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주이신 그분께 아무 할 말이 없다. ... 하나님은 토기장이이시고 우리는 진흙덩이들이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로서 진흙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는 귀하게 쓰실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고 하나는 천하게 쓰실 그릇으로 만드실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달린 것이다.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2, 23-2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로마서 9 장 21 절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밝힌다. 이 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계시하는 유일한 말씀이다. 이 절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사람을 하나님 담는 그분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기 어려울 것이다. 우리 모두는 자신이 하나님을 담는 용기(容器)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내용이 되신다는 것을 철저히 이해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4 장 7 절은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질그릇들이고, 하나님은 보배이시며 내용이다. 하나님은 그분의 미리 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주권으로 우리를 그분을 담는 그릇으로 창조하셨다.

디모데후서 2 장 20 절과 21 절도 우리를 귀한 그릇이라고 말하면서 같은 사상을 전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해지고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쓸모 있게 되기 위해 천한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귀한 그릇이 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담는 긍휼의 그릇들을 창조하셨으므로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이것은 깊은 말씀이다. 하나님의 주권이 그분의 선택의 근거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진노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분의 능력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지만, 멸망받아야 마땅한 진노의 그릇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너그러이 대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롬 9:22) 이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는가? 우리에게서 아무 할 말이

없다. 그분은 토기장이이시고 그분께 권위가 있다. 사람은 단지 진흙에 불과하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공훈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이 그릇은 우리, 곧 그분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만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롬 9:23-24) 모든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들 중에서도 선택하시고 불러내신 우리를 그분을 담는 공훈의 그릇들로 만드실 권위가 있으신데, 이것은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시려는 것 곧 나타내시려는 것이다. ... 우리는 그분의 주권에 의해 그분을 담는 그릇들, 곧 영광 안에 계신 그분의 존재를 나타내는 귀한 그릇들이 되도록 미리 정해졌다. 이것은 그분의 공훈에 속한 것일 뿐 아니라 그분의 주권에 속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목표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을 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표현하는 많은 그릇들을 얻으시는 것이다. ...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시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그릇들로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창조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을 받아들이어 우리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담음으로써, 우리가 그분과 하나 되어 그분의 존재를 표현하고 또한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얻으시도록 하려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기도 하다.

이 부분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유용성의 절정을 보여 준다. 그것은 우리가 그분께 노예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왕들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담고 표현하는

그릇들로 쓰이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들로 쓰이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셔야 한다. 우리는 그분을 담는 그릇이며 그분의 표현이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내용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은 우리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시려는 것이다. 그분과 우리, 우리와 그분은 결국 생명과 본성 모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께서 그분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선택하신 목표이다. 이것은 또한 그분의 선택에 따른 우리의 운명이기도 하다. 이 운명은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나타날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2, 24-26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2 권, 메시지 22, 3 권, 메시지 58

5/21 수요일

아침의 누림

마 9: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공훈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공훈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눅 15:20, 22-24

20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다정하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22 그러나 아버지는 그의 노예들에게 ‘어서 그 제일 좋은 걸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23 또 살진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거워하자.

24 왜냐하면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되찾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였습니다.

마 12:7 ‘내가 공훈을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뜻을 여러분이 알았더라면, 죄 없는 사람들을 죄 있다고 판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호 6:1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치료하실 것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공훈은 하나님의 속성들 중 가장 멀리까지 미치는 것이다. 공훈은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은혜만큼 멀리 미치지 않으며, 그분의 은혜는 그분의 공훈만큼 멀리 미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좋은 상태에 있고 내 위치가 어떤 이의 위치와 부합할 때 그가 내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내가 가련한 상태에 있고 내 위치가 그와는 비교도 안 되는데 그가 내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은 공훈이다. 만일 내가 그에게 사랑스러운 친구로서 갔을 때 그가 내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내가 가난하고 더러운 거지이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가 내게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공훈이다. ... 은혜는 오직 그것에 부합하는 상태에까지만 이른다. 그러나 공훈은 더 멀리까지 나아가서, 가련하여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까지도 이른다. 우리의 천연적인 상태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 있으며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우리는 오직 그분의 공훈을 받을 자격만 있을 뿐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1, 135-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에게 이룬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다. 우리 중 아무도 그분의 은혜에 부합하는 상태에 있지 않았다. 우리는 너무도 비천하고 가련해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타락한 상태에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있었다.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였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며,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심지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의 풍성을 함께 누리고 난 후인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를 필요가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런 이유로 히브리서 4 장 16 절은, 먼저 우리가 긍휼을 받아야 하며 그런 다음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를 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오,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 ...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항상 그분의 긍휼이다.

우리의 관념은 원하는 사람이 획득하고자 하는 것을 얻고, 달음질하는 사람이 쫓아 달리는 것을 얻으리라는 것이다 (비교 롬 9:16). 만일 이러하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에 따른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선택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는 원하거나 달음질할 필요가 없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안다면, 우리의 노력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실패로 인하여 좌절하지도 않을 것이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로마서 11 장 32 절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긍휼에 기회를 주며, 하나님의 긍휼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우리가 가련한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이르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이끈다. 누가복음 15 장 20 절부터 24 절까지는 아버지가 돌아오는 탕자를 보고 그를 측은히 여겼다는 것을 말해 준다. 그것은 더 깊은 긍휼이었으며, 아버지의 애정 어린 사랑이 표현된 것이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그에게 제일 좋은 겹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먹였다. 이것은 은혜였으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나타낸 것이었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멀리까지 미쳐서, 우리와 하나님의 은혜 사이의 간격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흔히 우리는 자신의 가련한 상태 때문에, 은혜를 입을 수 있기 전에 긍휼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마치 거지처럼 은혜의 보좌(히 4:16) 앞에 나오는데,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의 상태와 다소 같다. ...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올 때 우리는 자신이 가련하다는 느낌이 들어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다. “너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는 긍휼이 많다. 나의 긍휼은 너에게도 미쳐서 네가 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한다. 내가 너에게 제일 좋은 겹옷을 입힐 수 있도록 나의 긍휼은 나를 너에게로 인도한다.”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1, 136-138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1 권, 신약과 하나님의 신약 경륜, 하나님, 메시지 10-11

5/22 목요일아침의 누림**롬 9:15-16**

15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16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달음질하는 사람에게 속한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히 4: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벤전 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크신 긍휼에 따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살아 있는 소망을 갖도록 하셨으니

벤전 2:10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에는 긍휼을 받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긍휼을 받았습시다.

신 4:29 거기서 여러분은 여호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온 마음과 온 혼으로 그분을 찾으면 그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 55:6 찾을 수 있을 때에 여호와를 찾으며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렘 29:13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찾고 또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그분께 경배를 드려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말씀드려야 한다. “주님, 당신의 주권에서 우리는 당신의 긍휼을 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저는 당신의 주권에 대해 당신께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저는 악하고 죄가 많습니다. 때때로 저는 심지어 반역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는 제 마음이 부드러워진 것과 언제나 기꺼이 회개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에게 이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

하나님의 주권을 안다면, 우리는 그분의 긍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릴 것이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교회 집회에 올 때조차 자신이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아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죄악된 것들이나 세상적인 것들에 연루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임재 안에 함께 모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에 있는 것을 추구하며 그분과 하나 되기를 실행한다. ... 우리가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 아래 있음으로 인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2, 274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가 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긍휼에 속한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주종의 가장 행복한 저녁이 집회가 있는 저녁이라는 것을 간증할 수 있다. ... 주님의 주권적인 긍휼에 따라 우리가 집회에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님께 찬양을 드리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더 많이 감사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에게 주권적으로 주어졌다! ... 때때로 우리는 완고하지만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잠깐

동안만 그러하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던 사람에게 회개한다.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 때문이다.

아침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 자백하기 위한 탁월한 시간이다. 매일 아침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가질 수 있는 것에 대해 주님께 감사드린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자신이 이전에 저지른 실수를 깨달을지도 모른다. 그럴 때 우리는 회개하고 자백하게 되고 참된 영적 씻김을 체험한다. 우리에게 자원하여 회개하고 자백하고 주님께 의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오락에 빠져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함께 모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로 우리의 마음은 그분께로 이미 기울어졌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22, 274-275 쪽) 자신의 과거를 회고해 본다면 우리는 주님께 경배할 것이다. ...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셨으며, 우리가 출생할 때와 장소를 포함하여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을 안배하셨다. 더욱이 그분은 우리의 모든 날과 우리가 있어야 할 모든 장소를 정해 놓으셨다. 하나님의 안배에 따라 나는 20 세기에 태어났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을 접촉하기 쉬운 지역에서 태어났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신성한 긍휼에 속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합당하게 섬기고자 한다면, 복음은 은혜의 선택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긍휼의 문제이다. ... 오랜 세월의 체험을 통해 나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하고도 깊이 확신하게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의 문제이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볼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자원하여 감당하게 될 것이다.

왜 어떤 믿는 이들은 기꺼이 자신들의 책임을 지려고 하는데 어떤 믿는 이들은 그러지 않는가? 그 대답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다. 로마서 9 장 15 절에서 바울은 주님의 말씀을 인용한다. “내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안에 있는 그분의 긍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반응했다. 즉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고, 오늘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회복의 길을 가지 않고 뒤로 물러났을 때 우리는 이 길을 갔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자신은 오늘 주님의 회복 안에 남아 있지만, 그들을 이 길로 인도했던 사람들은 이 길을 가지 않았음을 간증할 수 있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8, 148-150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7 권, 믿는 이들, 메시지 110

5/23 금요일

아침의 누림

롬 9:18, 23

18 그러므로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고집스러워지게 하실 사람을 고집스러워지게 하십니다.

23 하나님께서 또 영광에 이르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들에 대하여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어찌하겠습니까?

롬 8:29-30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만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롬 9:11 쌍둥이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사람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사람의 행위에 있지 않고 부르시는 분께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시려고),

롬 11:5, 30-32

5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이 있습니다.

30 전에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으나, 이제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때문에 긍휼을 받았습니다.

31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또한 지금 불순종하고 있으나, 여러분에게 베푸신 긍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들도 긍휼을 받게 될 것입니다.

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회복과 관련해서 긍휼히 여기실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가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총명하거나 더 주님을 추구하기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것이다. 주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을 그분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생활 안으로 데리고 오셨는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은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할 것이다. 나는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우리가 은혜의 선택을 받은 남은 이들 가운데 속한다고 믿는다(롬 11:5). 복음과 생명의 사역과 주님의 회복 안에 있는

교회생활과 관련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다. 그분의 주권적인 긍휼로 인해 얼마나 그분을 찬양해야 하는지!(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8, 15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는 결코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하며,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우리 자신의 어떠한 이유나 우리가 행한 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 우리가 구원받은 것과 기꺼이 주님의 길을 취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긍휼인지! 더욱이 우리가 오늘날의 악한 시대에서 기꺼이 분별되고자 하는 것도 긍휼이다. 세상은 매력적이며 동시에 유혹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한 입맛이 전혀 없음을 나는 간증할 수 있다. 나는 일종의 신성한 절연체로 덮여 있는데, 그 절연체는 세상 체계에서 나를 보호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의 또 다른 방면이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영과 그 영 안에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은혜의 선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알아야 한다. ... 나는 주님께서 긍휼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해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시도록 그분을 앙망한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이나 여러분이 행하려고 계획한 것을 신뢰하지 말라. 그보다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라. 여러분이 주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높이 올려질 것이다. 책임을 짊어지려고 분투하는 대신에 여러분은 주님께서 그분의 긍휼 안에서 여러분을 짊어지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는 이런 방식으로 주님을 알 필요가 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그분의 회복 안에 두신 것은 어떠한 긍휼인가! 우리의 장래에 대해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않으며,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긍휼을 신뢰한다. 우리에게 관한 모든 것이 주님에게서 비롯되었다. 모든 것이 그분께 속해 있으며, 우리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면 할수록 더욱 그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게 되고 그분과 더 하나 된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다.

책임을 짊어지려고 분투하지 말라. 그 대신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라.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면, 그분은 여러분이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짊어지실 것이다. 우리가 책임을 완수하려고 자신 안에서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내적으로 더 고통을 받게 된다. 우리 안에는 쓴맛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고 또 우리가 책임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짊어지시는 그분을 체험한다면, 우리 안에는 꿀처럼 달콤한 맛이 있을 것이다. 내가 날마다 기쁜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주님의 긍휼을 신뢰하고 또 그 긍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주님께 나를 위해 수많은 것을 해 주시기를 간구하곤 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분의 긍휼로 인해 그분께 감사하며 기도한다. 그분은 긍휼히 여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누리고 그분의 선택으로 인해 그분께 경배한다면, 우리는 하늘들 안에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것은 우리의 원함이나 우리의 달음질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속한 문제이다. 우리의 원함도 소용없고 우리의 달음질도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놀라운 방식으로 작용한다. 우리는 변할 수 있고 끊임없이 오르락내리락한다. 우리에게 관한 한, 우리의 영적 상태는 변화무쌍한 날씨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선택이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달려 있음을 보아야 한다. 오늘날 우리가 체험하는 것은 영원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택과 관계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우리 자신과 우리의 환경에서 눈을 돌려 변함없이 그분만을 바라볼 것이다.(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 권, 메시지 58, 150-153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치만 니 전집, 개정판, 28 권, 하나님의 복음(1), 2 장

5/24 토요일

아침의 누림

렘 2:4-5

4 그러나 공허이 풍성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5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롬 11:32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공허를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마 9:13 여러분은 가서 ‘내가 공허를 원하고 희생 제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막 5:19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의 집, 그대의 친척에게 가서, 주님께서 그대에게 얼마나 큰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공허를 베푸셨는지를 그들에게 알리십시오.”

딤후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그분의 공허에 따라 새로 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사 45:8 위에서부터 떨어뜨려라, 하늘들이 구름이 의를 흘러내리게 하고 땅이 열려 구원과 의를 내게 하며 그것들이 함께 솟아나게 하여라. 나 여호와가 그것을 창조하였다.”

로마서 9 장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허에 달려 있다는 원칙을 계시해 준다.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원칙을 적용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공허에 속한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 주었다.

열심과 추구는 유용하지 않다. 열심을 내지 않고 추구하지 않는 것 또한 유용하지 않다. 오래 망망하든 망망하지 않든, 아주 빨리 달리든 아주 느리게 달리든 이런 것들은 모두 유용하지 않다. ...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허에 달려 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들을 합당한 위치로 인도하실 수 있다. 사람은 반드시 최소한 한번은 하나님의 공허를 보아야 한다. ... 여러분이 이 문제를 갑자기 보든, 아니면 과정을 통해 깨닫든, 이 문제를 만지는 순간 하나의 사실을 만지게 된다. 그것은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이다. 이 사실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공허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위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개정판, 1 장, 15-1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하나님의 공허는 하나의 사실이다. 사실은 느낌에 좌우되지 않는다. 거듭남의 문제를 한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종종 죄인들에게 반드시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분명한 체험을 한 번은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 원칙적으로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공허를 깨닫는 것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 사람이 하나님의 공허를 확실하게 만지는 때가 적어도 한 번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아야 할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지가 강한 사람과

감정이 강한 사람과 생각이 강한 사람이다. ... 의지와 감정과 생각은 반드시 하나님의 파쇄를 겪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다루시는 것 못지않게 사람의 강점을 다루고자 하신다. 많은 경우 사람의 강점이 약점보다 더 그의 영적 진보를 가로막는다. 사람이 이 세 방면에서 처리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허를 알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은 후에는, 영적인 생명의 방면에서 조절될 것이다. ... 어떤 사람들은 너무 오래 기다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충분히 기다리지 않는다. ... 어떤 사람들은 속사람은 충분히 강하지 않은데 겉사람은 몹시 강하다. ...

어떤 사람들은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감정이나 의지가 너무 강하다. ... 이러한 상태는 조절되어야 한다.

우리의 영적 생명이 잘 조절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상태를 합당하게 균형 잡히도록 조정해야 한다. 우리는 결코 너무 지나치지도, 너무 모자라지도 않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핀볼(pinball) 게임에 비유될 수 있다. 핀볼 게임은 왼쪽과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핀들을 사용하여 공이 적절한 각도로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점수를 얻을 수 있으며, 그러지 않으면 공이 엉뚱한 곳으로 빠지게 된다. 영적인 노력에는 많은 함정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는 모두 우리에게 방해물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거나 모자란다면 위험에 빠지게 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공허에 달려 있다. 나는 구원받기 전에 미국으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두 달만 일찍 갔더라면 위츠두(余慈度) 자매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아마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설령 그 후에 나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해도 나는 믿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때 내가 위츠두 자매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었다. 그것은 지나치게 이른 것도, 너무 늦은 것도 아니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꼭 맞는 정도로 일들을 하실 수 있다. 우리 사람의 말은 너무 지나치거나 부족하기가 쉽다.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의 필요를 만족시켜 줄 메시지를 전할 수 없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조차도 동일한 문제에 부딪혔다. 말이 사람의 입 밖으로 나올 때 딱 알맞게 나오기가 어렵다. 바로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말을 쉽게 오해하는 것이다.

지난 이천 년 동안 교회의 길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긍휼을 양망하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를 조절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청년들에게 “오 년 후에야 비로소 여러분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개정판, 1 장, 16-1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워치만 니 사역 재개 메시지 기록(상), 개정판, 1 장

추가로 읽을 말씀

로마서 라이프 스타디, 개정판, 3권,
메시지 58

5/25 주일

아침의 누림

눅 10:25-37

25 보아라, 어떤 율법사가 일어서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26 예수님께서 그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그대는 그것을 어떻게 읽습니까?”라고 하시자,

27 그가 대답하였다.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28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올바르게 대답하였습니다. 이것을 실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살 것입니다.”

29 그러나 그는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보이려고 예수님께 물었다. “그러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30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받아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반쯤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 버렸습니다.”

31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으며,

32 마찬가지로 레위인도 그곳에 왔다가, 그를 보고는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3 그러나 한 사마리아인이 여행을 하다가 그에게 와서,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 다가가 그의 상처를 싸매며 기름과 포도주를 부은 다음,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돌보아 주었으며,

35 이튿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십시오. 비용이 얼마가 더 들든 내가 돌아올 때에 갚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였는데,

36 그대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들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37 그러자 그가 “그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입니다.”라고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도 가서, 이와 같이 하십시오.”